

지역 매 아리

정부 정책 대응 방안 모색

완주군, 과수 화상병 예방 총력

완주군이 배, 사과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세균성 병인 화상병은 주로 봄철 가지치기 시기에 사용한 전정가위를 통해서 옮겨지거나 사과와 배 개화기 때 진딧물, 벌과 같은 곤충에 의해서 옮겨진다.

잎, 줄기, 가지 등이 붉어 테인 듯이 검게 변하고 고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치료방법이 없어 화상병이 발병하게 되면, 확진 시에는 과수원 전체뿐만 아니라 반경 100m 이내 기주식물을 모두 매몰하는 등 과수원을 폐원해야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사과, 배 재배면적이 100ha에 달하는 완주군에서는 약제 살포 뿐 아니라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방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약제사용법과 지속적인 현장지도 등을 통해 방제효과를 높여 사과, 배 재배농가들이 화상병으로 피해받지 않는 안심지역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과, 배의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과와 배의 새순이 나오기 직전과 배의 꽃눈이 나오기 직전에 전용 약제를 1차 살포하고, 꽃이 활짝 핀 5일 후에 2차 살포하는 등 2번의 방제를 해야 충분한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경연 과수담당관은 "사과, 배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화상병 전용약제를 활용해 적기에 예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로알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분야 전문가 강의와 지역문화 답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강의는 국가예산 확보 전략, 지역발전지원사업 이해, 김제시 도시 계획 발전 방향, 정책기획 능력 및 보고역량 향상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 사례 및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방향, 국가예산 확보 단계별 대응 전략 노하우 등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공무원이 앞장 서서 내 고장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지역 내 금산사 일원에서 진행되었고, 금산사(불교), 수류성당(천주교), 금산교회(개신교), 원평교당(원불교), 증산법종교(증산교) 등 지역문화 답사를 통해 상생과 평화의 한민족문화를 직원들이 직접 체험해 더욱 의미 있는 워크숍이 되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올해 국가예산 전년 대비 25%증가한 사상 최대 7,031억원을 확보한 것은 중앙 및 전북도,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열악한 시 재정을 극복하고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구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방향과 중앙부처 역할 추진사업들을 치밀하게 분석해 일자리 창출,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 신규 국비 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8일 박성일 군수는 여직원 420여명에게 하얀색 히어신스 꽃 화분을 전달했다.

“여성이 행복해야 완주군이 행복”

박성일 군수 세계 여성의 날 여직원에게 히어신스 전달

박성일 완주군수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직원들에게 깜짝 선물을 안겼다.

지난 8일 완주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이날 오전 분청시에 근무하는 전체 여직원 420여명에게 하얀색 히어신스 꽃 화분을 전달했다.

화분에는 '여성이 행복하면 완주군이 행복합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했다. 하얀색 히어신스는 '행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본래 세계 여성의 날에는 장미꽃을 선물하는 것이 관례지만 박 군수는 직원들이 인권신장을 되새기고 항상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화분을 선택했다.

박 군수는 "여성의 날을 앞두고 지역발전 위해 고생하는 여직원들에게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주고 싶었다"며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완주군도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분 선물을 받은 김윤경 주무관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정말 놀랐고, 꽃말의 의미처럼 행복했다"며 "꽃의 의미를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사무실 책상에 두고 잘 키우겠다"며 활짝 웃어보였다.

앞서 완주군은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는 물론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원룸과 주택 출입구 등에 안심거울을 설치하는 등 여성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한편,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숨진 선배 노동자들을 기리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선거권 쟁취 등을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날이다. 1911년부터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해 각종 기념행사를 열었으며 1975년에는 UN에 의해 공식 지정됐다. /완주=이중복 기자

농업수도 완주, 귀농귀촌 1번지 재입증

2018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최우수상'

완주군이 2018 도시민 농촌유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지난 8일 완주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실시한 귀농귀촌 업무담당자 워크숍에서 전국 5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도시민 농촌유치 우수 지자체는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 등 단계별 심층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 자리에서 완주군은 우수사례까지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완주군은 귀농귀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여 받았으며,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출산 고향화로 사라져가는 농촌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주민용화 및 안정적 정착을 비롯해 청년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김제시 공동브랜드인 지평선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평선 공동브랜드 쌀, 파프리카, 포도, 배, 감자, 한우, 한돈, 할라피 8개 품목, 상표승인 사업체(11개소)이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지평선을 활용한 포장재 지원으로 김제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농가의 소속감과 김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신형순 먹거리유통과장은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해 지평선 브랜드 경쟁력 강화, 인지도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가 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지회장 이종선)에서는 지난 5일과 8일(2일간) 김제시노인회 2층 강당에서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7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 및 활동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순서는 식전에 "백세 살아가는 비법" 동영상관람(김형석 교

수), 이종선 지회장 환영사, 박준배 김제시장 축사, 이재연, 최영자 참여자 대표 선서, 전북심리검사연구소 참여자 활동교육 순으로 진행하였다.

2019년도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서는 7개사업에 1,166명이 노인일자리 활동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김제시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서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종선 김제시지회장은 환영사에서 "노인사회활동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마을 생활안전용 CCTV설치 사업설명회

김제시는 지난 8일 2019년 마을 생활안전용 CCTV설치 사업설명회를 김제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도 마을 CCTV 설치를 희망한 15개 마을 대표자와 김제경찰서 생활안전담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CCTV설치 보조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 진행절차, 사업목표,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영상정보보호 등에 대한 마을의 이해를 돕고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마을 생활안전용CCTV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농작물절도 및 빈집털이 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인 상황에 대처하고 각종 강력사

건의 잇따른 발생에 대비하여 마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설치된 자체 방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4년 사업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김제시 총 750개 마을 중 491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범죄 사건 해결을 위한 CCTV의존도가 절대적이라며, 김제시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29%가량 감소했고 검거율은 20%가량 높아졌다고 한다.

김제시 정보통신과 김종배 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조사업 지원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투명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